

<3 개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악한 공산당의 허다한 거짓말은 천하의 웃음거리로 되고 있다. 그중 <3 개대표>는 역시 세상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첫번째는, 사악한 중공은 근본적으로 <선진 생산력의 대표>가 아니다. 사악한 중공은 줄곧 빈곤의 대명사로써 어디에 사악한 공산당이 있으면 그곳은 곧 빈곤했다. 세상사람이 다 알다 싶이 동서독일, 남북조선, 동서유럽, 중국대륙과 대만, 중국대륙과 홍콩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한쪽은 정상적인 자유 사회이고 다른 한쪽은 공산당 독재사회이며 한쪽은 부유하고 다른 한쪽은 빈곤하다. 또한 사악한 공산당은 진정한 과학과 지식을 반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진 생산력을 대표할수 없다. 이른바 투쟁과 폭력을 선양하는 마르크스주의는 파괴의 학설이고 건설의 학설이 아니며 략탈의 학설이고 생산의 학설이 아니다. 사악한 공산당은 부체(附体) 특징을 가진 기생충으로써 민족, 국가, 사회, 인민에게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아무런 재부도 창조할줄 모르며 오이려 생산을 저해한다. 이것은 세계 력사리론 연구에서 얻어낸 가장 기본적인 결론 이다.

두번째로, 사악한 공산당은 <선진문화>를 대

표할수 없다. 사악한 공산당은 가장 부패하고 략후한 문화를 대표한다. 서양문화의 각도에서 보면 사악한 공산당은 오히려 스코라디, 상라트, 와리스더의 정통적인 서양문화를 계승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가장 반동적인 문화방향을 계승했고 문화의 쓰러기를 보배로 여겼다. 중국문화의 각도에서 보면 사악한 공산당은 로자, 공자의 박대정심한 전통문화를 계승하지 않고 도리어 가장 반동적인 문화방향과 문화의 찌꺼기를 대표했으며 력사상에서 가장 부패하다.

세번째로, 사악한 중공은 <가장 광대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가장 협애한 집권 소집단의 리익과 권리를 위해 분투했다. 사악한 공산당 내부도 역시 개인 자사자리가 팽창하고 인류의 도덕과 량심을 저버리고 서로간에, 심지어 부자지간과 부부지간에도 서로 다투고 있다. 오늘날 중공약당이 무너지려고 할때 누구도 인민, 국가, 민족의 안전과 위기를 넘려하지 않고 더욱 서둘러 사리를 도모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파고 있다. 사악한 중공은 아무리 <3 개 대표>를 표방하고 떠들어대지만 이 새빨간 거짓말을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

올림픽운동인권성화가 독일에 전달



2007 년 8 월 9 일 올림픽운동발원지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지퍼올린 <인권성화> (왼쪽 사진)는 8 월 18 일에 독일베를린에 전달되어 단거리운

동선수가 인권성화를 받아들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인권성화는 사실 중국인민을 위해 달린다. 중국인권이 올림픽운동전에 개선되기를 바란다.> <인권성화>는 이후 1 년동안 5 대주 30 개 나라를 거치게 될 것이다.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에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인류평화자유 의 상징인 올림픽운동회가 중공의 독재와 탄압의 2008 년북경올림픽운동회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중국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시를 불러일으켜 박해를 저지시키기 위해서이다.

<비인도적인 기관의식에 휩쓸려들지 말라>

대만위생서 서장 후승모(侯胜茂)는 2007 년 8 월 11 일에 <대만대학의학원복미학우회 27 차년회>에 참석하여 캐나다 데이비드-길고어와 데이비드-매터스가 쓴 <중공생체적출조사보고>를 보고 아주 걱정 되어 대만의사들에게 비인도적인 기관의식에 휩쓸려들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대북의학원복미학우회회장 장화웅(张和雄)은, 대만은 장기의식에 대해 각별히 신중해야 하며 모두 세계의 표준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은 위법적이므로 우리는 응당 반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 숫자



- 1999 년 7 월 20 일 이후 8 년동안 3074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공의 박해로 사망했다.
- 지금까지 2505 만명이 중공관련조직에서 탈퇴했다.

한국승려가 신운(神韻)을 관람하고 평생의 추구를 명확히 알았다



2007 년 4 월말, 미국신운예술단은 한국에서 3 차례 공연을 하여 중화 문화에 두터운 연원(淵源)이 한민족(韓民族)을 감동시켰다. 올해 85 세의 한국승려 오영규(吳永圭)는 (오른쪽 사진) 이 공연을 관람하고 <나는 원래 세상의 모든 일에 흥미가 없었지만 신운의 공연만은 달리, 그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미묘한 수련의 도리가 많이 들어있어서 언어로 표달할수 없다.>고 말했다.

동년의 기대

오영규의 고향에 한 로인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고종황제의 노비였다. 오영규는 8 세때 그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중문을 배웠다. 어느날 그는 오영규에게 <네가 70 살 이상 살수 있다면 세속에 내려온 미륵불의 정법을 전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그땐 이 세계는 좋게 변할 것이고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가 그때까지 살려면 꼭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하며.....기실은 남을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영규는 미륵불이 정법을 전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년을 찾았다.

그후 오영규는 사찰에 가 보았지만 승려들은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다시 산굴안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 사람과 함께 수련했다. 시간이 흘러 흘러 어느덧 60 세 가까운 오영규는 불교대학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한국 각지로 행각했다. 1988 년부터 시작하여 오영규는 집중적으로 “열반경(涅槃經)”을 배웠다. “열반경”에는 <법륜성왕이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사람뿐이고 법륜성왕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법이 없으며 법륜성왕이 나타나면 세상의 도적들이 일조일석에 착해지도다.>라고 적었다.

기연(机缘)이 닥쳐왔다.

작년 어느 하루, 그는 서울지하철에 앉아 가다 한 부녀의 손에 든 <전법륜>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영규는 그 책을 넘겨 받아주고 지체없이 책을 펼치고 <론어>를 단숨에 읽어보았다. 오영규는 여기서 심오한 법리를 깨달았고 자신은 마치 전우주를 얻은 것 같았다. 줄곧 눈물을 흘리면서 신운예술단공연을 관람한 오영규는 자신의 인생의 기다림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알았다.



박해로 사망된 료녕릉원시 대법제자 호염영

료녕성릉원시 악경들이 지난 8 월 1 일 저녁에 룡원시북로향 대법제자 호염영(胡艳荣)을 불법랍치하여 몽둥이와 전기방망이 등 흉기로 폭행을 가했다. 머리에 중상을 입은 그는 혼미해 쓰러졌다. 4 일후 호염영(오른쪽 사진)은 룡원시감옥관리분국병원에서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8 월 12 일 조양시공안국, 룡원시위, 룡원정법위원회, 룡원법원, 룡원시공안국 등 불법관리들이 그를 협박하여 강제로 화장해 버렸다.



석청송을 즉각 석방하라!

2007 년 5 월 12 일 오후 3 시경에 룡정시공안국과 조양천파출소 악경 근 10 명이 룡정시 조양천진 8 도촌 대법제자 석청송(石青松)을 불법랍치했으며컴퓨터 한대를 빼앗아 갔다.

석청송은 아버지가 없고 기맥이 빠진 어머니 뿐이어서 반신불수로 침대에 누워있는 녀동생을 그가 보살펴야 했다. 석청송 어머니는 룡정시공안국에 가서 <너희들이 붙잡아간 죄없는 내아들을 내놓아라. 의지가 없는 나와 녀동생은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룡정시공안국 악경들은 오히려 들은채 만체했고 시법원에서는 석청송에게 로동교양판결을 내려 박해를 감행하고 있다.

모든 악경들은 각성하여 박해를 즉시 멈추고 석청송을 즉시 석방하라. 이것이 자신의 앞길을 책임지는 일이 될것이다.

악보 받은 원 연변주위서기 전학인

전학인(田学仁)은 연변주위서기를 담임하고 정법사업을 주관한 기간에 강택민을 바싹 따라 적극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했다. 그의 직접 지휘하에 파룬궁에 대한 박해수단은 아주 잔인했는데바무고한 파룬궁학원들을 체포하여 마구 때리고, 달아매놓고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 갖은 폭행을 감행했다. 그의 지휘에 따라 연변의 악경들이 수백명 파룬궁학원들을 죽이거나 불구자로 만들었고 수천명을 로교소와 감옥에 보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어떠한 법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악보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고급별장 여러채를 소유하고 호화롭게 사는 등 재산래력이 분명하지 못해 적발되어 중앙규를 검사위원회에 잡혀 심사중에 있다.

